주간 KTTU
Weekly KTTU

<제75호>
2005년 4월 18일

당당한 노동조합 건설!!

www.kttu.or.kr

발행·편집: KT노동조합 주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 전화: 031-727-4820~4855 팩스: 02-750-5404

<우리사주조합장 선거관련 노동조합의 입장>

선거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이후 조합활동의 시금석으로 삼겠습니다

조합원여러분!

노동조합은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고용안정 정책의 일환인 우리사주조합장 쟁취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으며 이러한 경영참여 노력은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과제입니다. 노동조합은 이번 선거결과에 대한 조합원의 뜻을 겸허히 수용하고 다시금 조합활동의 시금석으로 삼고자 합니다.

다만, 선거과정에서 발생되었던 노동조합에 대한 음해선전 및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장의 분명한 입장이 있어야 할 것이며, 또한 이번 사태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도 사측에 있음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조합원여러분!

노동조합은 이번 선거결과를 계기로 깊이 반성하고 조합원과 함께 하는 현장중심의 조합활동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조합원 여러분의 격려와 지지에 깊이 감사드리며 그 동안 각 지역에서 땀흘려 뛰어주신 지부장 및 조합간부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말씀을 전합니다.

2005년 4월 11일

KT노동조합

우리사주 조합장 투. 개표 결과 공지

지난 4월 8일 실시된 우리사주 조합장 투, 개표 결과를 노동조합 홈페이지 자료실-문서자료실에 공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T행동혁신학교 교육자 사망과 관련한 노동조합의 입장

지난 13일 KT행동혁신학교에서 C2C 교육 중 강정환(국제통신센터) 조합원이 호흡곤란을 일으켜 병원에 후송됐으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먼저 슬픔에 빠져있는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의 말씀을 전합니다.

KT는 기존 3급이상 간부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C2C교육을 도전정신과 변화의식

을 고취하겠다는 취지로 2005년 들어 전 직원으로 확대했다.

2004년 하반기 몇몇 기업에서도 행동과학 훈련도중 심장마비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미 이러한 사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학정보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교육을 진행했다는데 큰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40대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KT의 인력구성으로 볼 때도 과도한 극기훈련은 각종 사고를 유발할 소지가 다분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았다는데 심히 유감의 뜻을 전한다.

이에 노동조합은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빠른 시일내 노사합동조사단을 구성하고 교육과정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2. 도전정신과 변화의식 고취라는 당초 취지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그 실효성 등을 따져 교육개선 또는 폐지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3. 진상조사를 통해 책임자의 관리소홀이나 무리한 훈련 강요 등이 드러날 경우 책임자에 대한 처벌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2005년 4월 15일

KT노동조합

■ 일시 : 2005.4.26 14:00

KT우리사주조합대의원회 소집 공고

■ 장소 : 연구개발센터 대강당 (서울 우면동)

■ 대상 : 우리사주조합 대의원

■ 목적사항

- 우리사주 운영현황 보고

- 임원(이사,감사) 선출

춘계 체육행사 실시

2005년도 춘계 체육주간을 맞이하여 각 지부에서는 자체 실정에 맞는 체육주간 행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여주시고, 각 지부장께서는 행사시 조합원의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체육주간 : 2005. 04. 25(월) ~ 04. 29(금)

○ 행사기간 : 4월중 (각 지부 실정에 맞게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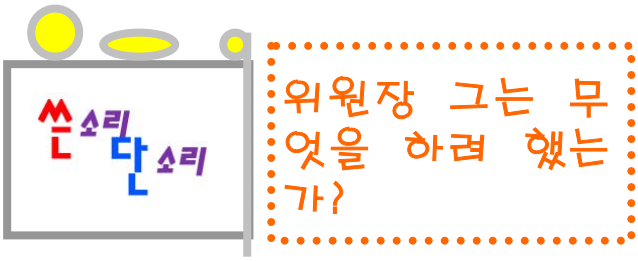
○ 예산지원 : 1인 2만원 기준 집행

○ 행사내용

- 체육대회, 건강달리기 대회, 등반대회 등 생활체육

- 씨름, 그네 등 민속체육행사나 각종 여가, 레크레이션 활동

- 체육에 관한 전시회, 강연회, 세미나 개최 등



[출처 : 고발게시판 2005.04.15]

조합원의 대다수가 바라고 있는 고용안정을 최고의 기치로 내건 8대 집행부는 이번 우리사주조합장 선거에서, 많은 노조간부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조합원의 표심을 잡지 못한 점이 현집행부에 대하여 긍정적인 시각에서 접근하는 조합원

들에게는 조직장악력을 걱정하는 분위기에 휩싸이게 만드는 단초를 제공 했을런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사주조합장 선거 후에 그 전 개과정을 살펴보면, 조합원들의 고용안정을 목표로 점진적인 제도의 정착을 마련해 나아가기 위해 수순을 밟아왔다는 사실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이는 차후에 우리사주 조합장을 노동조합에서 역임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였다는데 의의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러한 점에 주목한다면, 우리사주조합 운영상의 직선제라는 제도적인 접근이 작금에 와서 회사와 대등한 입장에서 선거전을 치루게 되었다는데 그 의미를 새롭게 조명해 볼 수 있다.

민영KT로 접어들면서 대내외 환경은 우리를 무한경쟁의 체제로 내모는 상황에 이르게 만들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배경으로 노동조합의 장으로서 그는 무엇을 약속하며 조합원에게 다가왔던가?

바람앞에 등불격인 KT의 현실속에서 더 이상 노동조합의 대립적 투쟁노선을 견지할 수 있었겠는가?

그래서 그는 선교섭후투쟁이라는 표어아래 조합원들에게 실익을 가져다

줄수 있는 방향에서 8대 집행부를 이끌고 있는 것이다.

물론 그에게 약점이 없는 것이 아니다. 조직의 수장으로서 때로는 아픈 부위를 도려낼 수 있는 냉혹함도 필요한 법인데, 그는 너무나 인간적인 리더라는 점이다.

이러한 인간본위의 철학이 그를 위원장의 자리에 앉히기도 하였지만, 그가 나아가고자 하는 먼길을 헤쳐 나아가는데 때로는 걸림돌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에게는 분명히 누구도 거스릴 수 없는 명분이 있고, 그 큰 걸음을 내딛기 위하여 오늘을 추스리고 거뜬히 일어날 것이다.

비록 지금은 토양이 비옥하지 않아 그를 이해하는 조합원이 적을지라도 그는 일어날 것이다! 조합원의 진정한 염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에...

이제 그를 위해 조합원인 우리는 조금 기다려 주어야 하는 것이다.

그의 인간적인 고뇌를 이겨낼 수 있도록 시간을 주어야 할 것이다. 그가 조합원을 생각하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조합간부들은 하루라도 빨리 위원장을 위시하여 하나된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해야하는 중요한 전환점에 서있다. 조합원들은 지켜 볼 것이다.

어느 누가 자신만의 안위를 위해 현집행부에 등을 돌리는지...."한 번 배신한 사람은 두 번 배신할 때 거리낌이 없다"는 말이 있듯이 조합원들은 머지 않아 그들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이는 특정 조합간부를 비방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다만 8대 집행부의 힘이 하나로 모이기를 염원하는 의미에서 드리는 간곡한 부탁이며, 진실된 당부이다.

노동조합의 발전을 진심으로 바라는 조합원이 위원장님과 조합간부님들에게 이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건강 상식

숨이 멎거나 심장이 안 뛸 때

[출처 : 건강샘 인터넷종합병원]

응급조치란 갑작스런 질병이나 부상이 있는 상태에서 의료기관이나 의사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기 전에 환자에 시행하는 일련의 조치를 말한다.

응급조치를 함으로써 환자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고, 상태의 악화를 방지할 수 있으며,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물론 사고가 예상되는 곳에서는 숙련된 응급조치 전문가가 상주해서 사고발생시에 응급조치를 시행하지만, 살다 보면 보통 사람들도 응급조치법을 알고 있다면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응급 조치는 매우 숙련된 기술을 요하므로, 서툰 응급조치로 오랜 시간을 끌어서는 안된다.

의료기관이나 의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빨리 만들어 가면서 그 도움을 받기 전에 응급조치를 시행해야 할 것이다.

응급조치의 기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영어 약자로 A,B,C라고 알려져 있는 다음 3가지 사항이 필수적이다.

A : 기도의 확보(An open Airway)

B:적절한 호흡유지(Adequate Breathing)

C:충분한혈액순환(Sufficient Circulation)

A,B,C를 염두에 두어야 하는 아주 위독한 상황은 다음과 같다.

-환자가 숨을 안 쉬거나 심장이 안 뛸 때

-심한 출혈이 있을 때

-무의식 상태

이와 같이 위급한 상황에서 뇌에 산소를 공급해 주기 위해 해야 하는 A, B, C와 같은 일련의 조치를 소생술(또는 심폐소생술)이라고 한다. 그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환자가 숨을 쉬고 있는지 알기 위해 기를 환자의 입 가까이 대고 가슴과 배가 움직이는지 살핀다.

환자가 의식이 없을 때에는 기도가 좁아져 있거나 막혀 있을 수 있다. 기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한 손을 환자의 뒷목 밑에 대고 다른 한 손을 환자의 이마에 댄 다음 머리를 뒤로 젖혀 준다. 뒷목에 댔던 손을 빼서 턱을 위로 올려준다.

기도에 이물질(예를 들면 음식물)이 있을 때는 머리를 옆으로 돌리고 손가락 두개를 넣어 입 안을 훑어서 빼낸다.

환자가 숨을 안 쉴 때는 기도의 이물질을 찾느라고 너무 시간을 끌면 안된다.

환자가 숨을 안 쉴 때는 인공호흡을 하는데 구강호흡법이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다. 그러나 환자의 입 근처에 소생술 시행자엑 해가 되는 약물이 묻어 있는 경우나, 얼굴을 심하게 다쳤을 경우, 자꾸 토할 경우, 얼굴이 아래로 고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시행할 수 없다. 구강호흡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입을 크게 벌리고 숨을 깊이 들이마신 다음 환자의 코를 손가락으로 막고 입술로

환자의 입을 덮는다.

- 환자의 가슴을 보면서 가슴이 팽창될 때까지 공기를 불어 넣는다.

- 환자의 가슴을 보면서 가슴이 팽창될 때까지 공기를 불어넣는다.

- 입을 떼어 나머지 숨을 내쉰 다음 환자의 가슴이 내려가는 것을 보면서 다시 숨을 들이 마신다.

- 처음 4번을 신속하게 반복한 후 심장이 뛰고 있는지 맥박을 확인한다.

- 심장이 뛰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경동맥박을 확인하는 것이다.

심장이 안 뛴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가슴을 반복적으로 압박해야 한다. 이 방법은 대상자의 혈액순환을 유지시켜 주기 위한 것이다.

- 환자를 딱딱한 곳에 비뚤어지지 않게 반듯하게 누이고 환자 심장 근처 옆에 무릎을 꿇고 앉는다.

- 흉골을 눈으로 이등분한다.

- 흉골 아래쪽 1/2에 한 손바닥을 대고 다른 손바닥으로 그 손을 덮은 다음 손가락을 깍지 낀다.

- 팔을 펴고 환자와 수직이 되게 몸을 앞으로 기울여 흉골을 압박한 후 제자리로 돌아온다.

- 1분에 80번의 비율로 15번을 압박한다. 다시 인공호흡을 2번 시행한다.

- 이와 같이 15번 흉골압박 후 2번 인공호흡을 반복적으로 시행하는데 1분간 한 후 맥박을 확인한다. 그 후는 3분마다 맥박을 확인한다.

- 심장이 뛰는 것을 확인하는 즉시 흉골압박을 멈춰야 하고 자연호흡이 돌아올 때까지 인공호흡은 계속한다. 호흡과 맥박이 돌아오면 환자를 회복자세로 취해준다.

회복자세를 취해 주는 요령

-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환자의 머리를 시술자 쪽으로 돌린 다음 머리를 뒤로 젖히고 턱을 앞으로 빼서 기도확보 자세를 취해 준다.

- 시술자 쪽 팔을 옆에 가지런히 놓은 다음 손바닥을 위로 하여 엉덩이 밑으로 밀어 넣는다. 반대쪽 팔을 가슴에 올려 놓는다. 반대쪽 다리를 시술자 앞으로 가져와 가까운 다리 위에 올려놓는다.

- 환자 머리를 한 손으로 받친 다음 시술자에서 먼 쪽 엉덩이의 옷을 잡고 환자를 시술자 앞으로 당긴다. 환자를 옆으로 돌린 다음 시술자의 무릎으로 지탱해 준다.

- 환자를 무릎으로 지탱하면서 머리를 다시 기도 확보 자세로 해준다. 시술자 쪽 팔을 구부려 윗몸을 지탱하게 한다.

- 시술자쪽 다리를 구부려 몸을 지탱할 수 있게 한다.

- 시술자 반대쪽 팔을 어깨에 낮게 한 채로 조심스럽게 당겨서 환자 몸과 평행하게 놓아 환자 몸이 뒤로 구르지 않도록 유지한다.

주말에 떠나는 문화체험

사나사계곡과 썰매재 드라이브

[출처 : 와우트래블 주말여행]

처음 사나사 계곡을 찾게 되는 사람들은 수도권에 이렇게 조용하고 깨끗한 곳이 있는지에 놀라게 되고 누구나 쉽게 걸을 수 있는 산책로 같은 사나사 입구 길의 호젓함에 다시 감탄하게 된다. 이렇듯 사나사 계곡은 거동이 자유롭지 못한 노인들이나 아직 어린아이들과도 함께 갈 수 있는 곳이라 삼대(三代)가 함께 찾을 수 있는 가벼운 휴식처이이다.

잘 정비된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용문산 서쪽 자락으로 발길을 옮기면 바로 사나사 계곡이 나타난다.

용문산 서쪽에서 흘러내린 계곡 물이 깨끗하고 수량도 풍부해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사나사 계곡은 길가로 물이 흘러 내리고 있어 손쉽게 시원한 물줄기에 발을 담글 수 있다.

계곡 입구에서 100m쯤 올라가면 함왕(咸王)이 솟아 나왔다는 전설이 깃든 「함왕혈」이 나온다. 절구처럼 파인 구멍 안에서 샘물이 솟는다. 설악의 오색약수에 비할 바는 못되지만 바위 안 구멍에서 솟아오르는 샘물은 신비스럽기까지 하다. 여기서 다시 100m 올라가면 바위와 계곡물이 어우러진 옥녀탕이 있다.

운이 좋아 독경을 하는 시간에 사나사를 찾게 되면 일주문부터 낭랑한 독경을 들을 수 있다. 일주문에 자그마한 스피커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주문을 통과해 잠깐 발걸음을 옮기면 고려시대 고찰 사나사를 만날 수 있다. 사나사 계곡 중간쯤 정도다.

본격적으로 사나사 계곡이 시작되는 곳에 위치한 사나사(舍那寺)는 작고 아담하지만 오랜 연륜을 지닌 유서 깊은 절이다. 신라 경명왕7년(923)에 고승인 대경대사가 제자 융문과 함께 창건하고 5층 석탑과 노사나불상을 조성하여 봉안하고 절 이름을 사나사로 하였다.

이후 고려 공민왕 16년(1367)에 보우(普愚)가 140여칸 규모로 중건하였으나 임란 등 세파를 겪으면서 불타고 무너져 지난 1993년경에야 대웅전을 다시 지을 수 있었다. 경내에는 도유형문화재 72호인 원증국사석종탑과 도유형문화재 73호인 원증국사석종비가 있다.

사나사계곡 서쪽 바로 옆 용천리에는 아직도 사람의 손때가 덜 탄 설매재 자연휴양림이 있다. 사나사 계곡에서 나오다 용천2리 방향의 이정표를 참고하면 쉽게 찾을 수 있다.

사나사 계곡을 먼저 들르지 않고 바로 찾을 경우에는 옥천읍에서 용천리 방향 이정표를 따라 계속 직진하면 된다. 설매재 휴양림 입구에는 제법 많은 전원카페가 모여 낭만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썰매재를 향한 언덕길이 시작되면 개성 있는 전원주택들과 독특한 분위기의 카페들이 계속 등장해서 자칫 지루해지기 쉬운 풍경에 액센트를 넣는다. 점차 힘겨워하는 엔진 소리가 들리즈음이면 양평군 청소년 수련원이 나타나고 곧 설매재 자연휴양림 입구에 닿게 된다.

썰매재 자연 휴양림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여느 휴양림과는 달리 민간 기업이 운영하는 휴양림이다. 이곳에서는 단순히 숙박시설만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산림전문가가 숲의 구성과 나무의 분포, 특징을 설명하는 학습과정인 숲 설명회(10명 이상의 단체만 가능하며 사전예약만 가능)이나 서바이벌 훈련 등 다양한 레저 프로그램이 있어 즐거운 여가 시간을 즐길 수 있다.

지방본부소식

지부소식